



고창 선운사 천왕문 안 생령좌, 입을 벌여가리며 폭진 얼굴을 돌려 원망을 표출한다. 고통스러운 표정이라기 보다는 아직 억울하다는 표정이다(위). 포항 보경사 천왕문 안 북방다문천왕 및 생령좌, 꼭 다문 입술과 바로 든 두눈, 고개를 든 얼굴에는 반성의 모습이 역력하다.

권중서의 즐거운 사찰 해학 돋보기

우리 문화 알리미 '문화사랑 걸망 메고' 운영... "불교미술 속에 삶 있어"

"유주사 효행 박물관에는 부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의 조각으로 멋지게 나타낸 불상이 있다. 부처님이 찢을 먹어 길러주신 은혜를 표현한 이 불상은 중생들의 진리에 대한 갈증을 언제나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찢 먹여 양육하는 것으로 표현됐다. 조선시대 어머니의 모습으로 저 고리를 뒤로 젖혀 드러난 찢기름은 풍만하고 여유로워 언제나 자식을 토틈히 기르려는 어머니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 부처님? 이런 해학적인 부처님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고요하고 적막한 사찰은 수행하고 기도하는 곳이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 해학과 익살을 감춰놓고 은근히 즐겼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룩한' 사찰이라고 가만 놔뒀을 리 없다.

그래서 저자 권중서(조계종 포교사)는 곳곳에 숨어 있는 해학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찰 구성구석을 렌즈에 담았다. 학자들이 불교미술을 양식사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면, 저자는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있는 불교미술을 그리는데 사찰의 세밀한 모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경전·설화도 소개해 재미를 더했다.

법당 전장에는 용과 족제비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불화 속에는 부처님 제자들은 설법하는 부처님 앞에서 장난도 친다. 부처님이 앉아계신 대좌 밑에는



유포양육불상(화성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

비굴한 용이 잡자리에 쫓겨 다니고, 사천왕 다리 밑에 깔린 생령좌는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이런 여유와 해학은 인도, 중국, 일본의 사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사찰과 관련 없는 것 같은 조각이나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여유와 해학을 주기 위한 화승과 조각상의 재치다"라며 "일반 서민이 법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10여 년 전부터 '문화사랑 걸망 메고'를 운영하며 우리문화 알리기에 주력한 저자는 일반인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60장의 도판을 사용하면서 일주일부터 미륵불까지 다양한 불교용어를 풀어 썼다.

종교미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근엄함·경직·신을 향한 끝없는 복종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미술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불교는 근본부터가 인간의 끝없이 자유로운 사유에서 나타난 깨달음의 종교다. 특히 한국 불교미술에서 나타나는 근엄함 속에 내재된 여유, 이것이 불교미술의 해학"이라고 말한다.

사찰의 구성구석 불교미술의 해학길·사진 권중서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8000원 | 이나은 기자

깨달음의 사회실현

보광 스님 첫 산문집



"나는 이미 '성불'이라는 출가사문의 대과제를 다음 생으로 미뤘다. 그리하여 지난 세월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깨달음의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저 옛날 행자 시절 '이 땅의 불교를 일으키자'고 굳게 발원했던 것처럼."

30여 년을 동국대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온 보광 스님(종계산 정토사 주지, 종회의원이 첫 산문집 <연꽃이 피었습니다>를 출간했다.

청계산 정토사에 연지를 조성해 연꽃으로 장엄하고, 연꽃축제를 개최하고 축하할 곳에 화환 대신 연꽃통을 보낼 만큼 연꽃을 사랑하는 보광 스님. 책에는 도량에 핀 연꽃과 대화하며 소박한 기쁨을 찾고, 정을 나눠온 스님이 진흙탕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연꽃향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은 스님이 본지를 비롯해 법보신문, 동대신문 등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산사의 새벽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연꽃의 지혜 △누구를 믿고 사나 △그리운 분들 △불교정책에 대한 몇가지 제언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자로 나눠 수록했다.

40여 년을 출가자로서 살면서 소소한 작은 일상까지도 대중을 위해 남겼던 보광 스님. 현재 동국대 교수·종회의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통해 행사시절 발원한 '깨달음의 사회실현'을 실천 중인 스님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연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만나보자.

연꽃이 피었습니다 | 보광 지음 | 여재장 펴냄 | 1만5000원 | 조동섭 기자

어린 중생이 어른 부처가 되기 위한 유행가

우리 시대 보현보살 광덕 스님이 부른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어린 시절에는 구두를 신는 엄마가 참 부러웠었다. 그래서 가끔 엄마가 외출하던 날에는 신발장에서 물레 구두를 꺼내 신곤 은 집안을 누볐다. 구두 크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발로, '따따따' 구두 소리를 내며.

나이를 먹고, 원 없이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됐지만 구두를 신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도 편하지도 않았다. 좁아터진 구두 안으로 발을 구겨 넣을 때는 저절로 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더군다나 구두를 신어 물집이 터진 발을 볼 때는 더욱 그렇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물집 터진 발로 구두를 신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안으로는 상처가 깊고 터져도 밖으로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아파도 아닌 척, 울어도 안 울은 척, 슬퍼도 아닌 척, 수퍼파워 '캔디' 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은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불러야 할 유행가 같은 존재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불러야 할 모든 노래가사를 담고 있다. 번뇌란 것은 좀 전까지 손톱만한 크기였어도, 눈 깜짝할 새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음을 짓누른다. 비워야 할 것들이 금방 차오른다.

아무리 좋은 경전 말씀도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뿐이다.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은 부처님께 드리는 서원이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서원이기도 하다. 책은 우리가 부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부처이다.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친구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도 곧 부처고, 보살이다.

고려시대 균여 대사는 <보현심행원가>를, 우리 시대에 보현보살로 함께 계셨던 광덕 스님은 보현행원을 원으로 삼아 <보현행자의 서원>을 노래했다.

책은 지금 이 순간 부처로 살고 싶으면, 보현행자의 서원을 수지하고 독송하라고 권한다. 나 자신 하나가 바깥으로 가정이, 이웃이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고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선재 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해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수보살은 "보리심을 발하고 선지식을 찾아 묻고, 보현행원을 하라"고 답했다. 선재 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구법했다. 대승불교의 꽃인 <화엄경>은 무엇이 부처이며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구법하는 선재 동자는 가장 마지막에 만난 보현보살을 통해 부처의 세기인 법계에 들어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과 같을 지도 모른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선재 동자가 선지식들을 찾아다녔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물질 잡힌 발로 구두를 신는 것처럼, 삶은 불어 터진 발처럼 고통과 슬픔이 더 아람담기도 하다.

가끔 어른이 되는 과정이 힘들고 지치다면, 보현행자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노란색 책에 담긴 서원들이 '망할 구두'를 '구두보살'로 바꾸게 한다. 한국말 노래가 지겹다면, 영어 번역도 함께 들어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 광덕 지음·김영로 역 | 불광출판사 펴냄 | 9000원 |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 법정 | 문학의 숲 |
| 2 | 일기일회 | 법정 | 문학의 숲 |
| 3 | 부처님의 생애 | 편찬위 | 조계종출판사 |
| 4 | 사는 즐거움 | 보경 | 돌 |
| 5 | 연꽃이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6 |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 창진 | 휴 |
| 7 | 누구 없는가 | 법진 | 김영사 |
| 8 | 열두 달 절집 밥상 | 대안 | 문진당 |
| 9 | 조용한 행복 | 도현 | 돌 |
| 10 | 아름다운 마무리 | 법정 | 문학의 숲 |

*출처: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3672-7181~5

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실증설, 방거사어록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로 보인 1부와, 태초로부터 영겁에 이르는 성품의 이치를 날날이 법문으로 설한 2, 3부를 보아 실증하기를...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사찰 건축의 얼굴 문

학! 바뀌드립니다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문짜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에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PC고건축·사찰문·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모 임영창 합창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집합니다

중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중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양의 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움버 250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